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한반도 철도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남북~유럽 연결, 동북아 물류 중심지 될겁니다

1 남북철도 시험운행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 간 철도는 끊어졌습니다. 한경남도 안변과 강원도 양양을 잇는 동해선은 전쟁이 터지자 곧바로 중단됐고, 서울과 신의주를 오가는 경의선은 이듬해인 1951년 6월 폭격으로 끊어졌습니다.

동해선과 경의선의 끊어진 철로를 다시 이어 시험 운행하는 것은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다음달인 7월 제 1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됐습니다. 그 뒤 연결공사가 진행돼 2003년 '남북간 철도 연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달리다가 4년이 더 걸렸습니다. 북한이 '군사보장'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사보장이란 상대방 인원이 자기 측 영토에 올 때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북측은 지난해 11월 제5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를 서명했고, 56년만에 다시 남북 철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2 남북 연결 경제적 효과는?

이번 개통은 시험 운행에 불과하지만 경제적 의미는 상당합니다. 일단 개성공단까지 연결돼 정기 운행이 이뤄질 경우 개성공단 생산품의 대량 운송이 가능해지고, 개성공단에 부족한 노동력 수급도 원활해집니다.

5월 말 분양 신청을 받는 개성공단 1단계 잔여용지 53만평에서 200~300여 개 업체가 본격적으로 입주할 경우 북측 근로자 7만~10만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인력 수급 능력으로는 3만~4만 명이 한계인 상황입니다.

남북철도 시험운행, 한반도중단철도 구축 '성큼'

지난달 17일 남북한을 잇는 철길이 56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경의선 문산역(남→북)과 동해선 금강산역(북→남)을 각각 출발한 열차가 4km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 각각 개성역과 제진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산을 출발해 한반도를 통과하는 한반도중단철도(Trans Korea Railway, TKR)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KR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하나로 묶는 '철(鐵)의 실크로드'(silk-road)의 시발점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우뚝 설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철도 시험운행이 갖는 의미와 우리나라 철도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다.

남북철도 시험운행, 한반도중단철도 구축 '성큼' 대륙철도 연결까지 北철로 현대화 등 과제 많아

개성공단을 넘어 남북이 완전히 철도로 이어진다면 경제적 이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의 화물을 인천에서 평안남도 남포시로 해상 수송하려면 운임이 720달러에 달합니다. 왕복 수송 일수 역시 7~10일에 이릅니다.

하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132달러로 1~2일 만에 같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수송 일수를 일주일 정도 단축하고 운임 역시 588달러(81.6%)나 절약됩니다.

정부는 경의선만 연결되더라도 북측은 연간 1억 5천만달러~남측은 1억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3 대륙철도 연결 가능성은?

이번 남북철도 시험운행은 우선 대륙 철도 연결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반도중단철도와 시베리아

철도 철도 연결의 본격적인 논의는 1990년대 중국이 시장경제에 눈을 뜨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다가 이번 남북철도 시험운행을 계기로 다시 러시아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부 또한 실질적인 대응으로 성과를 가지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에 따르면 한반도중단철도와 시베리아철도 철도 연결 경우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의 화물운송 시간을 8일, 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당 운임도 해상운송의 절반 가량인 600달러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대륙과 해양을 잇는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의 방대한 영토와 인구, 시베리아의 풍부한 자원, 일본의 첨단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남

북 철도 시험운행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상시 연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한반도중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유럽국가들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한반도보다 중국해안과 연결하는데 관심이 높고, 러시아도 인도와 철도 연결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에 앞서 북측의 철도 현대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시험운행에 의해 남측구간 선로 정비에 3천 645억원, 북측 구간에 대한 자재·장비 제공에 1천 800억원 등 모두 5천 445억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노후한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려면 10조원이 더 들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남북철도의 주축을 어디로 할지 결정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북측은 주민의 외부 접촉을 피하기 위해 외곽 동해선을 축으로 하길 원하는 반면 남측은 경부선과 경의선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간다면 한국 철도의 미래는 또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 시험운행이 실시된 지난날 17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역에서 열차가 북측을 향해 합쳐 출발하고 있다.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남북철도 연결에 민간 경제적 효과만 2억 5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鐵)의 실크로드? 亞-유럽 경제권 통합 목표 유라시아대륙 잇는 철도 남북철도 연결이 시발점

'철(鐵)의 실크로드'란 유라시아대륙을 잇는 철도망을 말합니다. 한반도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민주횡단철도(TMR) 등을 하나로 묶는 것이지요.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일본까지 해저터널로 연결, 동북아와 유럽연합(EU) 경제권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중단철도(Trans Korean Railway, TKR) = 부산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통과하는 철도입니다. 아시아 대륙과 유럽을 잇는 국제철도의 시발점이지요. 동해선(함경남도 안변~강원도 양양), 경의선(서울~신의주), 경원선(서울~원산) 등 남북분단으로 단절된 철도구간을 복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철도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철도 현대화 작업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 알 수 없고, 분담 방식도 검토되지 않고 있어 구축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 Siberian Railway, TSR) = 1891년 착공돼 1916년 개통된 러시아의 간선 철도망으로,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를 잇는 총 길이 9천297km의 세계 최장 철도입니다.

중국횡단철도(Trans China Railway, TCR) = 중국의 톈진(天津)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 모스크바, 베를린을 거쳐 로테르담에 이르는 총 길이 1만2천971km의 철도입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경유해 TSR과 연결되는 국제철도망의 중심축입니다.

민주횡단철도(Trans Manchuria Railway, TMR) = 중국 지린(吉林)성을 출발해 만주지역을 통과, 러시아와의 국경역인 내몽골자치구의 만주리(滿州里)역(러시아쪽은 자바이칼스크)를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러시아의 카림스크역에서 TSR과 만나 유럽의 주요 도시로 연결됩니다.

몽골횡단철도(Trans Mongolia Railway, TMGR) = TMGR은 중국의 톈진(天津)에서 출발, 베이징(北京), 몽골의 울란바토르, 몽골과 러시아의 국경역 수흐바토르역과 나우시키역 경유해 러시아의 울란우데역에서 TSR과 연결됩니다.

아시아횡단철도(Trans Asian Railways, TAR) = 기존 국제철도망뿐 아니라 동남아, 서남아를 모두 아우르는 철도망입니다. 총 길이가 8만1천km에 달하고 경유하는 국가도 28개 국가에 이릅니다. 철도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말 유엔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교통장관 회의에서 정부가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라산~부산 구간 등 총 929km의 구간을 TAR 국제철도 노선에 반영했습니니다. 노선은 모두 4개로 북부노선의 제 1노선은 한반도~중국~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 지역 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section containing various listings such as '대인부동산컨설팅', '세하늘과새땅공인중개사',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현대공인중개사', and '법원경매 전문회사'.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for property listings.